



# 금속캔 맥주 동향

## Trend of Metal Can

정용민 / OB맥주(주) 홍보팀 차장

### 1. 금속캔 맥주 현황

현재 국내 맥주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캔맥주 제품은 용량기준으로 500ml와 355ml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오비맥주의 OB와 카스의 경우 시즌에 따라 400ml 또는 450ml 등의 보너스 캔 등을 출시 하긴 하지만, 주류 제품은 500ml와 355ml 두 가지다.

오비맥주가 출시 중인 캔맥주 제품들은 OB 500ml, OB 355ml, Cass 500ml, Cass 355ml, Cafri 355ml, Budweiser 355ml, Red Rock 355ml 등이다(사진 1).

전체 맥주 시장에서 캔맥주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6%정도. 현재 출시되어 있는 맥주 용기를 크게 나누면 병, 캔 및 페트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비맥주가 국내 최초로 페트병 맥주인 OB 큐팩을 출시한 2003년 11월 이전까지는 캔맥주 제품은 병맥주 제품에 이어 중요한 용기로 가치를 인정 받아왔다.

그러나 편리성과 대용량을 앞세운 페트병 맥주의 출현으로 캔맥주 제품은 전체시장에서 20% 이하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 2. 금속캔 맥주의 변천사

세계최초의 캔맥주는 1935년에 나온 버거 맥주회사의 7.6리터 대형 맥주캔으로 '뷔르거 맥주회사'의 뷔르거 맥주 캔이다.

식료품 통조림캔의 경우 1800년대 중엽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나 맥주캔이 나온것은 1930년대중반이다. 물론 이때 나온 캔들은 모두 납땜주석캔이었다. 이후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짧은 기간 동안 용접강관(Welded steel Can)과의 혼용기간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 오비맥주가 캔맥주 생산 설비를 경기도 이천에 완공하여 첫 캔 맥주를 출시했다. 1970년대부터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투피스 알루미늄캔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알루미늄캔은 특성상 가볍고 내부식성, 내산성, 맛의 보존성, 냉각의 용이성 등이 우수해 사용량이 빠른속도로 증가해 세계 최대의 맥주시장인 미국의 경우 99% 이상이 맥주캔으로 알루미늄캔을 사용하고 있다.

캔의 발전과정 중 가장 큰 기술혁신은 종래 캔따개를 이용하여 열던 것을 캔따개고리(Ring-pull Tab)를 캔 윗부분에 부착하여 이를 손가락

[사진 1] OB 맥주가 출시중인 캔맥주 제품



으로 잡아당겨 열 수 있도록 한 캔의 출현이라 하겠다.

1962년 처음 개발하여 시장에 소개된 이러한 캔따개는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따고 버린 캔고리가 또다른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사진 2] 뷔르거 맥주 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캔따개 부착형캔(Stay On Tab).

이는 1970년대 말에 개발된 것으로 캔을 따고 나서도 캔고리가 캔에 그대로 붙어있도록 한 것이다. 그후 부착형 캔따개캔의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 중엽부터 맥주 및 모든 청량음료에 대하여 캔따개 부착형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폐기물예치금을 “캔따개 분리형”은 개당 4원 “캔따개부착형”은 개당 2원을 부과해 “캔따개 분리형”에 보다 높은 예치금을 부과하고 있다.

알루미늄캔은 주로 맥주와 탄산음료 용기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체 캔용기류 사용중 16.6%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사용한 알루미늄캔은 모두 7억5백만개이며 그 중 맥주캔은 4억2천만개 정도이다. [2]